월요광장

운암서원과 의병장 송제민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야말로 조선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고 가장 처참한 민족의 비극이었다.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죽어야 했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 모든 문물이 깡그리 파괴되는 불행을 겪어야 했던가. 그러한 비극과 참담한 세상에서, 호남인들의 몸을 던지는 애국과 충렬정신에 의해, 끝내는 망하지 않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자랑스러운 호남정신은 죽음의 잿더미와 비극의 불행 속에서 발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은 나라를 지켜낸 성웅으로서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若無湖南 是無國家)는 명언을 남길 수 있었다.

나는 엊그제 무등산 자락의 화암동에 위치한 운암서원(雲巖書院)을 방문했다. 숙종 때 창건되었지만 정조 13년에야 활성화되었다. 1789년 정조는 의병장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어간 충용장 김덕령(1567~1596) 장군을 신원하여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태어나서 살아갔던 마을을 충효리라고 명명하여 억울함을 풀어서 현양하는 조치를 취했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을 해냈었다. 그러면서 김덕령 장군의 가까운 친척이자 의병 활동을 권유했던 해광 송제민(宋濟民: 1549~1602)에게 의병 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사헌부 지평이라는 벼슬을 증작하고 운암서원을 통해 송제민의 의혼을 현양하도록 하였다. 참으로 늦은 조치였으나 얼마나 뜻있는 일이었던가.

담양 출신이지만 광주에서 세거했던 송제민은 호걸의 용모에 의기가 뛰어났고 높고 깊은 학문으로 당대의 큰 인물로 명망이 높았었다. 토정 이지함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혀 학자로서도 뛰어났으나 임진왜란을 당하여 고경명·조헌·김덕령 등의 의병에 가담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천하의 의기 남아였다. 벼슬도 하지 않고 처사로 살아갔던 이유로 전쟁이 끝나고도 그를 알아 주는 사람이 적었다. 나라에서도 그의 공훈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다. 다행히 송제민의 사위인 석주 권필(權韠: 1569~1612)의 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 그의 공적은 정조 때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알려지는 기회를 맞았다. 당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문장가였던 권필은 광해군 시절의 패악한 정권을 비판하다 시 한 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참여 시인이었다. 그는 송제민의 딸을 아내로 맞아 장인으로 모셨던 송제민의 일생을 참으로 소상하게 기록하여 남겼다. '해광공유사'(海狂公遺事)라는 이 장문의 글은 글도 명문이지만 송제민의 일생을 참으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다.

'해광공유사'라는 중요한 자료 덕분에 잊혀진 송제민은 다시 살아나 세상에 빛을 남긴 의병장이자 학자로서 생애가 정확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 글에 의지하여 뒷날 우암 송시열은 '해광선생 묘표'를 지어 묘비문을 통해 그의 공훈과 학문적 업적이 소상히 밝혀지게 하였다. 현석 박세채에 의하여 '해광선생전'(海狂先生傳)이, 송암 기정익에 의해 '해광선생 행장'이 저작되어 세상에서 해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고 넓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권필·송시열·박세채·기정익 등이 누구인가. 대문장가이자 대학자들인 그들의 글로 그 정도의 칭송을 받은 분이라면 당연히 오늘의 모든 국민도 그분의 의혼과 학문적 업적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건만, 오늘의 우리들은 너무나 그분에 대하여 알지를 못한다. 무등산의 산자락에 그렇게 우람하게 서있는 운암서원도 알아주거나 찾아보는 사람도 없다. 운암서원의 운암사에는 해광선생을 주벽으로 모시고 임진왜란에 포로가 되어 항복을 거부하고 물에 투신하여 자결한 큰아들 송타(宋柁)와 사위 석주 권필을 배향하고 해마다 춘추로 두 차례 제향을 올린다. 후손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 사우를 지키며 보존하고 있으며 뜻있는 선비들이 함께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초라하지 않게 현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진왜란, 나라가 위급하자 호남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고경명·김천일·김덕령·송제민, 얼마나 씩씩했던 의병들이던가. 그들이 앞장서자 호남 전역의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왜적과 싸워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칭송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자 의병이던 해광 송제민을 잊어서야 되겠는가. 나는 이번 추향에 초헌관으로 초대받아 해광 선생의 신위 앞에서 공손하게 엎드려 술 한잔을 올려바쳤다. 그러면서 선생의 의혼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수필의 향기

나지완의 꿈

박 용 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타이거즈 야구에는 스토리가 있다. 삶의 애환이 끈적끈적 묻어난다. 그래서 애잔하다. 눈썹 밑에는 때론 서글픈 눈물이, 때론 감동의 눈물이 딱지 져 있다. 그래서 타이거즈는 '너'가 아니었다. 늘 '우리'였고 결국 '나'였다.

모기업이 가난해서 선수를 팔아 팀을 운영할 때 우리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를 목청껏 부를 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 가장 증오한 5공화국 정권이 만든 프로야구에 가장 매료된 사람들이 우리였다. 우리는 모기업 해태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을 통해 알았고 팀이 해체될까 끊임없이 전전긍긍했다.

타이거즈에는 개성 강한 선수가 많았다. 한국시리즈에 오르면 매번 우승하였고 또 우승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는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결과가 뻔해서 좀 싱거웠다. 우리를 위로라도 해주듯 경기마다 신출귀몰하게 펄펄 나는 영웅이 나타났고 선수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가을 드라마를 썼다. 그 팀이 타이거즈였다.

타이거즈의 최근 스토리를 장식한 선수는 나비, 나지완이다. 그가 은퇴한다니 괜히 미안하고 눈물샘이 그렁해진다. 왜 그를 보면 시름시름 아픈 걸까.

가난했지만 화려했던 해태는 20세기에 걱정했던 바대로 지고 말았다. 그리고 2001년 기아로 이름을 갈아탄 타이거즈는 가난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승패에서 암흑기를 맞이한다. 2005년은 승률 0.392라는 팀 사상 최다 패로 야구팬들을 기아에 빠트렸다. 모두 영웅을 기다리는 그 깜깜한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가 바로 나지완이었다. 2008년 입단한 그는 2009년 10월에 열린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패배 직전의 팀을 극적 홈런으로 우승으로 이끈다. 드라마보다 더 강렬했다.

나지완이 뛸 때 타이거즈는 겨울이었다. 좋은 투수는 많았지만, 독보적인 홈런 타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토록 갈망한 홈런 타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해태가 아닌 기아의 명실상부한 4번 타자였다. 나지완이 아닌 '나지왕'이라고 불린 그는 우리가 가장 사랑한 선수이자 신이었다. 그는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배트, 호남 사람들의 열망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매 타석에 나선 선수였고, 1472경기마다 매 타석 홈런을 쳐야 하는 선수였다. 하지만 불과 221개 홈런밖에 치지 못한, 타이거즈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친 형편없는 타자였던 셈이다. 그러기에 가장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선수였다

나지완은 열심히 뛰었다. 사구도 포볼도 가장 많았다. 이를 악물고 뛰어도 언제나 귀여운 순둥이였다. 그는 15년간 기아에서만 뛰었고 언제나 4번이었다. 하지만 우린 그가 포볼로 걸어서 나가도 불만이었고 안타를 쳐도 홈런이 아니라고 투덜댔다. 너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게 우리 애정 표현법이었다.

많이 미안하다. '방망이는 못 치면 나만 죽는다. 하지만 실수 하나 하면 팀이 질 수 있다' '열정은 스피드건으로 찍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그가 2009년 보여준 경기는 지금까지 야구 중에 단연 최고의 경기였다. '팬들은 기록을 원하지 않는다. 감동을 원한다.' 나지완은 그런 멋진 아름다운 선수였다.

그는 "그동안 팬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최고의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겠다"라고 은퇴 의사를 밝혔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제 그는 우리 곁을 떠난다. 우리의 어리광에 그는 언제나 묵직한 홈런, 진솔한 삶으로 화답했다. 나지완의 야구 스토리는 여기까지다. 요기 베라의 말처럼 그의 삶은 몰라도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현역 시절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길 고대한다. 그의 꿈이 후반전에 더욱 빛나길 기대한다.

기 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대응

김 현 식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례 없는 기후 시스템의 변화와 급격한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유럽·중국·파키스탄 등 지구촌 곳곳에서는 심각한 기상변화를 경험하며 극한 가뭄과 홍수,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로 큰 손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홍수 피해에 이어 올해 8월에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이 발달하며 남부 지방에 피해를 주는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양상의 재해도 나타나고 있다. 집중 호우와 가뭄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연재해가 한반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광주·전남 지역은 가뭄으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수자원 시설 중 하나인 주암댐의 경우 8월 말 기준 가뭄 '심각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초대형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약 39% 수준으로 100㎜ 이상의 강우가 더 내려야 가뭄 해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섬유역본부는 가뭄 초기부터 환경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천 유지 용수, 농업용수와 생활·공업 용수 공급 최적화, 보성강댐과 주암댐, 주암 조절지댐과 수어댐 연계 등 다양한 가뭄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였고, 광주·전남 13개 지자체 및 여수·광양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물 이용량의 자율 절감도 추진했다. 또한 물 절감 목표 달성시 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대국민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상생 협력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은 반복되고 장기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슬기롭고 고도화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기존 수원 간 연계 공급 시설의 확충이다. 지역 내에 있는 수원이라 할지라도 국지적인 기상 여건과 물 이용량에 따라 수원의 여유량이 달라질 수 있다. 타 유역과 비교하면 수원 확보가 쉽지 않은 우리 유역에서는 다목적댐과 농업용 저수지 등 기존 수원 시설들 간에 물을 공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 네트워킹 및 연계 시설 확충을 통해 탄력적인 수원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둘째,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고도화된 용수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 '스마트 물관리 체계'(SWM) 구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유수율 관리로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도 자원이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물 재활용과 같은 자원 이용성 제고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 관리 기술 고도화와 기반 강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 물순환 저영향 개발(LID)을 통한 투수성 포장 확대 및 직접 유출 감소,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물 관리 기술 발전과 예측 가능한 물 이용 시스템 구축 등 진보된 기술의 접목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여수·광양 산단의 경우 해수담수화 시설 등 물 공급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체 수원 검토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자연의 위험성 앞에서 이제는 그간의 지혜와 노력을 뛰어넘는 더욱 진보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섬유역본부도 그간의 성과를 거울삼아 우리 지역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社 說

차기 총선 지역 의석수 감소 막을 대책 있나

오는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주민 감소로 여수갑이나 광주 서구을 등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근접한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수에 따라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총선이 다가오면 매번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28만 명, 14만 명이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각각 27만 8000명과 13명 9000명으로 낮춰졌다.

한데 지난 8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는 여수갑 선거구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보다 1만 명 이상 적은 12만 725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적지 않다. 광주 서구을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13만 9589명, 동남갑은 14만 325명, 서구갑은 14만 8511명, 전남 해남·완도·진도는 14만 3977명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수 기준일은 그보다 빠른 내년 1월 30일이어서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지역구는 기준일 이전에 인구를 늘리거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해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호남 정치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마저 줄면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 지역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의원들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자치단체와 지역민들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여수산단 또 사고…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또다시 위험천만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엊그제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고무 제2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가스가 발생해 근처에서 배관 증설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4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들은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누출된 화학물질이 '사이클로헥산'이라는 작은 불꽃에도 불이 붙는 인화성 물질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자칫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문제는 '화약고'로 불릴 만큼 여수산단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앞으로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3주 전에는 한 공장에서 고압 수증기 폭발로 배관이 연쇄 파손돼 휘발유인 열분해 가솔린이 유출되면서 발암 물질인 페놀이 소량 새어 나왔다. 또 지난해 12월 여수산단 내 이일산업에서 폭발 사고 후 발생한 화재로 세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2월에는 여천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네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치기도 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여수산단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시설 노후화와 관리 미흡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여수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시설이 낡은 데다 관리마저 미흡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 설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과 지자체는 노후 설비 관리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를 줄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환지본처(還至本處)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新德古墳)은 1991년 국내 장고분(일본 명칭 전방후원분) 가운데 처음으로 발굴·조사됐다. 이 고분의 발굴은 삼국시대 고분 연구는 물론이고, 일본 전방후원분과 연관성을 규명하는 단초가 됐다. 신덕고분은 도굴범이 2년여 만에 붙잡힌 드문 사례로 기억된다. 무덤을 파헤친 뒤 65점에 달하는 유물을 훔쳤으나 당시 서울지검의 대대적인 수사로 1993년 용의자 두 명이 붙잡혀 구속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도굴 덕분에 신덕고분이 본격 발굴되는 계기가 됐다.

문화재는 도난·도굴되면 범인 검거는 물론이고 회수가 어렵다. 외딴 고분이나 인적이 드문 사찰에서 유물을 훔치는데다 수십 년 감춰두었다가 은밀하게 암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이다. 소장자가 나타나더라도 선의취득(善意取得)을 주장하면 도난 문화재인줄 알면서도 환수가 쉽지 않다.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취득한 경우 법에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 구례 도계암에 돌아온 신중도(神衆圖)는 운이 좋은 케이스다. 1871년 제작된 이 불화는 2000년 10월 도난당했으나 여러 경로를 거쳐 우연찮게 이를 기증받아 소장한 곳이 경남 거제 대원사였다. 대원사가 신중도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의해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원사 측은 선의취득을 주장하지 않고 흔쾌히 돌려주기로 했다. "환지본처(還至本處: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되어야 한다"는 불가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도난·도굴, 암거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의취득 조항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유정주 국회의원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도난 문화재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화재의 출처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하루빨리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문화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